

로열티에 맞서는 국내 신품종 '희소식'

장미와 딸기 등 외국 종자로 농사를 짓는 농민들은 매년 상당량의 로열티를 지불해야 한다. 이런 가운데 농촌진흥청과 도 농업기술원뿐만 아니라 도내 지자체에서도 각 지역에 적합한 신품종 개발에 적극 나서 굵직한 성과를 내고 있다.

최근 강진군이 신품종 장미를 개발, 품종등록을 마치고 담양군도 신품종 딸기를 개발해 실증시험에 들어가 농가에 희소식이 되고 있다.

◇강진 장미 '누벨렛' = 강진군 농업기술센터는 최근 국립종자원에 신품종 장미 '누벨렛'(Nouvellet)에 대한 최종 품종 등록을 마쳤다. 이재신 연구사가 지난 2003년 장미육종에 착수해 9년만에 이룬 성과이다. '누벨렛'은 프랑스어인 '새로운'(Nouvelle)과 '보라'(Violet)의 합성어로, '새로운 보라'를 의미한다.

신품종 장미 '누벨렛'은 연분홍 보라색의 절화형 스탠더드 장미로 지난 2007년 '오션송'과 '안우크' 품종을 교배해 나온 품종이다. '누벨렛'은 일반 절화품종에 비해

강진 장미 '누벨렛' 품종등록 하반기 수확·보급 담양 딸기, 품종보호 출원... 8일까지 이름 공모



강진 장미 '누벨렛'



담양 신품종 딸기

수명이 7일 이상 길고, 꽃잎이 두꺼워 유통중에 발생하는 품질저하 우려가 적다. 현재 '누벨렛'은 80주가 시험재배 중이며, 올 하반기에 보급사업에 의해 첫 수확이 이뤄질 예정이다.

◇담양 신품종 딸기명 공모 = 담양군 농업기술센터는 지난 2006년부터 딸기육종에 나서 7년 연구 끝에 지난

해 (가칭) '담양 1호'(촉성재배용)와 '담양 2호'(반촉성 재배용) 등 2종류의 신품종을 선발, 현재 농가 실증시험을 진행 중이다.

'담양 1호'는 개화기가 '살랑' 품종보다 빠르고 과실모양과 향기가 좋으며, 당도(10.8브릭스)와 경도(硬度)가 우수한 특성을 갖고 있다. 또 '담양

2호'는 일본 '레드필'(陸寶) 품종에 비해 초세(初勢)가 강하고 흰가루에 강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번 육성된 신품종은 일본 '아키히메'(章姫)와 국산 '매향'(梅香) 품종을 교배해 선발한 것으로, 이달중 국립종자원에 품종보호를 출원할 예정이다.

담양지역은 1200농가(357ha)가 연간 1만 4000t의 딸기를 생산해 580억원의 소득을 올리고 있다. '담양 딸기'는 '지리적표시'(제70호)에 등록돼 있으며, 가락동 도매시장 점유율은 28%로, 전국 1위를 차지하고 있다.

신품종 딸기 개발자인 담양 농업기술센터 이철규 연구사는 "앞으로 '지역농업특성화 기술개발 과제'로 신품종 딸기에 대한 적응작형(作型) 개발과 재배시 문제점을 보완하는 표준화 기술을 개발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편 담양군은 신품종 딸기 품종출원에 앞서 오는 8일까지 전 국민을 대상으로 수요자인 농업인과 소비자가 쉽게 부를 수 있는 신품종 이름을 공모한다.

/중부취재본부=남철하·노정훈기자 chou@



“주암호 걸으며 환경의 소중한 배워요” 14일 걷기대회

광주·전남 시·도민의 식수원인 주암호의 수질을 보전하고 환경의 소중함을 일깨우기 위한 '주암호 사랑 걷기대회'가 오는 14일 북내면 주암호 생태습지 일원에서 열린다.

(사)주암호 보전협의회(회장 현고) 주관으로 열리는 이번 행사는 북내면 주암호 생태습지에서 기념식을 갖고, 북내면 주암호 주변 호소 일원 9km 구간을 걷는다.

걷기 코스는 주암호 생태습지를 출발해 진목교→북내면 통교리 외판마을→보성 정보통신고→주암호 생태습지 구간이다.

이번 걷기행사는 푸름이 이동한 경교실과 환경사진 전시, 자연물을 이용한 만들기 체험 등 각종 환경관련 체험장도 운영된다. 특히 행사당일 폐건전지와 폐휴대폰을 가져오면 친환경 비누 등

친환경 제품으로 교환해 주는 행사도 함께 열린다.

한편 주암호 생태습지는 국내 최대 규모인 21만㎡에 연못 21개소(저류지·지하호를 습지·지표호를 습지)와 정화시설 재배지, 습지 관찰대, 관찰데크, 야생화 체험단지 등을 갖춰 국내 최대 규모의 자연 체험 학습장으로 인기를 끌고 있다. /동부취재본부=선상근기자 sun@

유황 등 희석소독 '벼 키다리병' 줄여

전남도 농업기술원

전남도농업기술원 친환경연구소는 '벼 키다리병' 방제에 효과가 뛰어난 유기종자소독법을 최근 개발했다.

'벼 키다리병'은 기존에는 범씨 소독만 잘하면 방제를 줄일 수 있었으나, 최근 들어 이상고온과 친환경 재배면적 증가 등으로 피해가 늘어나는 추세이다. 그동안 유기제배 농가들은 '벼 키다리병' 감염률이 높은 범씨를 60도에서 10분간 '온탕 소독'했으나

방제효과가 낮고, 소독효과도 불균일한 문제점을 안고 있었다.

이번에 개발한 유기종자 소독방법은 기존 소독 후에 곧바로 꺼내어 찬물에 식힌 후 물 20ℓ에 유기물공시자재인 유황 400㎖ 또는 보르도액 400g을 넣어 희석한 물에 범씨를 담그고 30도에서 24시간 담가 소독한다.

새로 개발된 소독법은 '벼 키다리병' 뿐만 아니라 종자전염성 '세균성 벼알마름병'에도 효과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송기동기자 song@kwangju.co.kr



백야산 휴양림 봄맞이 한창

화순군 북면은 5일 식목일을 맞아 관광객이 많이 찾는 백야산 휴양림 진입로 입구인 용곡리 가로화단에 철쭉과 꽃잔디 5000여주를 식재했다. 이날 행사에는 북면 부녀회와 수리, 용곡 마을주민, 민사무소 직원 등 50여명이 참여했다. <화순군 제공>

지리산 남부사무소 '찾아가는 국립공원교실'

지리산국립공원 남부사무소(소장 박기연)는 이달부터 12월까지 '찾아가는 미래세대 국립공원 교실'을 운영한다. 이번 교실은 구례 중앙 초등학교와 구례 북중학교 등 7개 초·중학교의 신청을 받아 올바른 환경 보전 의식 함양과 자연 감수성 증진을 위해 마련됐다.

이번 프로그램은 ▲지리산 동·식

물이야기 ▲발로 배우는 국립공원 사찰문화 ▲자연 색과 향기 느끼는 테라피 오감체험 ▲지리산 반달가슴곰 복원이야기 등 총 16개 강좌로 구성된다.

윤지호 탐방시설과장은 "지리산권 미래세대들이 국립공원의 자연과 문화를 공감하는 배움터"라고 말했다. /동부취재본부=이진택기자 ik5826@

구례 산수유 '신기단' 300만달러 규모 日 수출

건강보조식품... 일본인 기호에 맞게 품질 고급화

구례 산수유로 만든 건강보조식품 '신기단'이 일본에 첫 수출 된다. 5일 전남도는 구례 산수유지역전라식품사업단에서 개발한 '신기단'이 본격적으로 일본에 수출된다고 밝혔다.

그동안 업체는 구례 산수유를 홍보하기 위해 지난 2010년부터 일본 도쿄식품박람회 등에 참가해 사업설명회와 해외바이어 초청행사를 개최했는데, 최근 일본의 유통업체 'REVE 21'과 300만달러 규모의 수출계약을 체결하는 성과를 거뒀다.

'신기단'은 일본 식품관계법에 맞춰 제조됐고, 7개월간 일본 현지 시장 조사와 소비자 의견을 반영해 일본인의 기호에 맞게 품질을 고급화했다.

또 생산비 절감을 위해 연간 300t 이상 산수유를 처리할 수 있는 전자리 설비를 자동화했고, 무인헬기를 이용한 공동방제로 농가당 134만원의 절감하는 효과를 거뒀다.

전남도 손영호 농업정책과장은 "산수유를 생산하는 농민들이 고령화되면서 모든 설비를 자동화해 생산

인가를 낮췄고, 품질을 균일하게 유지해 일본 진출에 성공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한편 도는 그동안 전국 생산량의 75%를 차지하고 있는 구례 산수유 상품화를 위해 지난 2008년 산동농협, 산수유농조합법인 등 9개 단체와 431개 산수유 재배농가가 참여하는 구례 산수유 지역전라식품사업단을 출범시켰다.

사업단은 '내몸안에 붉은함' 브랜드를 개발했고, 유통·가공시설을 설치해 지난해 61억원의 매출을 달성했다. /오광록기자 kroh@kwangju.co.kr

갯벌·도립공원 관람 쉬워진다

도, 조계산 등 5곳에 탐방로·오토캠핑장 설치

남도의 아름다운 갯벌과 도립공원에 오토캠핑장과 탐방 편의시설 등이 더욱 늘어난다.

전남도는 5일 16억여원 들여 순천 조계산·장흥 천관산·해남 두륜산 등

도내 5개 도립공원에 탐방로·오토캠핑장 등을 설치한다고 밝혔다.

주요 시설은 탐방로와 갯벌 체험시설, 안내 표지판 등으로 500m 길이의 탐방로가 개설되고 편의시설 15개

소, 안내표지판 정비 70개소와 갯벌 체험시설 2개소가 설치된다.

또 부족한 숙박·편의시설을 보완하기 위해 올해 역점사업으로 무안갯벌도립공원에 오토캠핑장을 조성할 계획이다. 이동식 주택 캐러밴 4~5대와 야외텐트촌을 갖춘 오토캠핑장을 시범 설치해 관광객들에게 해변의 아름다운 풍광을 선사한다. /오광록기자 kroh@kwangju.co.kr

우체국은 대한민국의 힘!
전남우체국은 전남의 힘!

전남지방우정청
KOREA POST http://www.koreapost.go.kr/jn/

"편지는 사랑이죠!"



사랑을 담은 예쁜 우표관함 사진 CONTEST 개최

참가자격 | 전 국민
접수기간 | 2012. 3. 12월 ~ 4. 10 화
접수처 | 광주·전남 소재 우체국 또는 E-Mail : omestone@mke.go.kr
제출서류 | 전남지방우정청 홈페이지 참조
입상작 발표 | 2012. 4. 20.(금)
주최 | 광주일보사·(재)전남문화산업진흥원
(사)한국사진작가협회

시상내용(상금/표창)
대상 | 50만원(1명), 우정사업본부장
금상 | 30만원(2명), 우정사업본부장
은상 | 20만원(2명), 전남지방우정청장
동상 | 15만원(2명), 전남지방우정청장
입선 | 10만원(5명), 전남지방우정청장
유의사항
응모자는 작품 제출 전 저작권 분쟁 방지를 위한 사전 동의를 득해야 하며, 응모된 모든 작품은 전남지방우정청의 공익목적 활동(전시, 홍보업무 등) 및 기타 모든 활동에 활용
· 입상작의 저작권 등 모든 권한은 전남지방우정청에 귀속
문의 : 전남지방우정청 우편물류과 ☎ 062-600-4655, Fax 062-600-4659

